

# 5·18연구 불모지에 '생각의 열림' 보인 「역사로서의 5·18.」

송복 연세대 명예교수

**역** 사란 무엇인가. 역사란 누가 만드는가. 역사는 누가 쓰는 것인가. 역사는 이 3가지를 어떻게 다루고 어떻게 답하느냐에 따라 각기 다른 역사가 된다.

## 기록되는 역사만이 역사가 된다

역사란 무엇인가. 그것은 먼저 역사를 어떤 시각에서 보느냐이다. 흔히들 史觀(사관)이라고도 말한다. 역사는 끊임없이 벌어지

는 事件(사건=events)들의 연속이며 그 사건들의 축적이다. 이 무수히 전개되는 사건들 중 어떤 사건들을 重視(중시)하고 어떤 사건들을 가벼이 하고 어떤 사건들을 간과 하느냐는 그 사람의 역사를 보는 시각에 달렸다.

역사는 누가 만드는 것인가. 역사는 사람이 만든다. 그 사람들 중에 그 어떤 사람이 만드느냐이다. 흔히들 나누는 사람들 중에 엘리트가 역사를 만든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일반 국민, 그

중에서도 민중에 속하는 사람들이 만든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 이 또한 앞의 어떤 시각에서 역사를 보느냐와 연관된다.

## 5·16이외의 60년대 이래의 다이나미즘 연구부족

누가 역사를 쓰느냐는 누구든 역사를 다 쓸 수 있는 자유며 권리가 있다는 것이고 그 중에서도 가장 절실히 쓰고 싶은 사람이 쓴다. 역사는 누구든 쓸 수 있지만, 사실은 누구든 쓰지 않는다. 그래서 역사는 쓴 사람의 역사다.

자기가 아무리 쓰고 싶고 말하고 싶어도, 쓰지 않으면 역사가 아니다. 마음속의 역사는 역사가 아니다. 기록한 역사만이 역사다. 역사상에는 무수한 사건들이 일어났고 또 일어나고 있다. 하지만 기록되지 않으면 그것은 역사가 아니다. 흔히 드는 예로, 로마 시대에 루비콘 강을 건넌 사람은 이루 헤일 수 없을 만큼 많았지만 그러나 역사에 루비콘 강

을 건넌 사람으로 기록된 것은 시저 한 사람 뿐이다. 「시저가 루비콘 강을 건넜다.」 역사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

1960년대 이래 우리 현대사는 「4·19」, 「5·16」, 「5·18」이라는 「엄청난」 사건들로 이루어져 있다. 이 「사건들」을 떠나서는 지난 반세기간의 우리 현대사는 그 어떻게든 설명할 수가 없다. 한일 합방이후 1960년까지 반세기간의 우리 역사가 他意(타의)에 의한 수동적이며 靜態的(정태적)인 역사였다고 한다면, 1960년대 이래 우리 역사야말로 가장 능동적이며 가장 動態的(동태적)인 역사라 할 수 있다. 한민족의 다이나미즘(Dynamism)이 지난 반세기만큼 치열하게, 심지어는 극열하게 분출되어 본적이 없었다. 우리의 지난날의 긴 역사 어느 시대에도 있어 본 일이 없다.

그러나 슬프게도 5·16을 제외하면 그 다이나미즘이 제대로 연구된 것이 없다. 5·16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多層面(다층

면)적으로 그 진상과 그 전개과정 그리고 그것이 남긴 역사적 결과와 역사로서의 振幅(진폭)이 깊이 연구되어있다. 사실 지난 세기, 60년대 이래의 지난 반세기 간의 우리 역사는 5·16에서 振動(진동)한 幅(폭)의 거리이며 波長(파장)의 길이라 할 수 있다. 그만큼 5·16연구는 여러 각도에서 다원적으로 다양하게 연구되어있다.

## 아직도 많은 5·18연구의 禁忌

금기

그에 비하면 4·19와 5·18연구는 상당히 미약하다. 4·19는 일어난 지 반 세기가 지났고 그리고 당시 주역들 중 학계 중심인 물들이 허다한데도, 어째서 「역사로서의 4·19연구」가 다각도로 다양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왜 거기에 대해 의문을 갖고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지, 여전히 의심스러울 뿐이다. 이 점은 5·18도 다르지 않다. 특히 4·19, 5·16에 비해 5·18연구는 사건이 발발한지 한 세대가 지났

음에도 연구의 폭이 너무 좁고 시각도 색깔도 너무 일원적이고 單色的(단색적)이다.

역사로서의 「5·18연구」의 폭이 좁다는 것은 아직 제대로 된 연구자가 없고 연구물이 안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그 시각 또한 多(다)측면적이거나 다양하지 못하다는 것은 5·18연구의 禁忌(금기)가 아직도 많다는 의미이다. 학문적 연구는 그 어떤 사건이든 금기가 있는 것만큼 줄어들고, 그 금기가 지속하는 것만큼 알아진다.

5·18이 일어난 지 한 세대가 지났다면 이제 그 금기도 파기되거나 완화되어야, 학자들 연구도 그 금기에서 그만큼 자유로워진다. 이제 5·18연구도 「학문적 자유」를 구가할 때가 되었다. 그래서 5·18연구가 다각도로, 다원적으로, 다양하게 이루어지도록 자극하고 격려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림자 5·18」이 너무 많이 만들어져서 「진상 5·18」보다 「허상 5·18」이 더 유행하게 된다.

5·18에 대한 가장 최근의 연



구는 在美(재미) 사학자이며 신학자인 김대령씨에 의해 쓰여진 「역사로서의 5·18」이 아닌가 생각된다.

우선 저서 자체의 부피가 방대한(전 4권 1200쪽)에 놀랍고 저자 스스로 「5·18」에 학생의 몸으로 참여했다는 진술이 저작의 무게를 더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유네스코에 세계기록 유산으로 등재된 5·18 순(전) 기록을 면밀히 분석해서 낸 책이란 점에서 다른 5·18 서적보다 데이터 신빙성이 더 높을 것이라는 믿음과 함께, 저자 자신이 역사를 체계적으로 공부한 역사학자이며 신학자란 점 또한 이 책이 함부로 저술된 것이 아니라는 생각도 갖

게 한다.

## 폭동의 발단을 유언비어에서 찾다

이 저서는 4개의 파트로 구성되어있다. 1권은 광주사태의 발생원인과 유언비어, 2권은 5·18 무장봉기 주동자들의 실태, 3권은 광주청문회에서 들어난 5·18 비화들, 4권은 5·18 재판 법리의 모순 그리고 당시를 생생하게 비춰주는 많은 사진들을 수록하고 있다. 여기에 적힌 각 파트의 제목들이 말해주듯, 「역사로서의 5·18」은 지금까지 정설이 되어온 「광주민주화운동」과는 전혀 다른 시각이며 다른 사실들

을 설명한다. 이 책대로 라면 5·18은 「광주민주화운동」이 아니라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체제전복 폭동」이 된다.

저자는 그 폭동의 발단을 「流言蜚語(유언비어)」에서 찾는다. 광주사태는 애초에 우발적 데모가 폭력화한 것이 아니라 사전에 계획해서 만들어낸 「유언비어」가 폭력을 불러왔다는 것이다.

“전남대 학생회장 박 관현이 죽었다” 누군가가 큰 소리로 외쳤다.... 박 관현은 여수 돌산으로 가고 있는 중이었음에도 아무도 사실 확인을 해보지 않은 채 그 유언비어는 시민들에게까지 퍼져 순식간에 여기저기서 파출소들을 습격하는 시위군중이 형성되었다. 이것이 예정보다 하루 앞당겨 광주사태가 일어나게 된 이유였다.

사실 유언비어는 5·18이 아니라도 모든 민중 폭동의 단서가 되는 공통성을 지니고 있다. 3·1 운동 때도 4·19 때도 그리고 1964년의 6·3사태 때도 한결 같이 운동을 자극하고 폭동을 유

발시키는 유언비어는 있었다. 문제는 이 유언비어의 주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이다. 대개의 유언비어는 길에서 만들어져서 길에서 살아진다. 이때의 유언비어는 주체가 없고, 주체가 없는 것만큼 사전에 계획되지도 않는다. 하지만 5·18 때의 유언비어는 주체가 있고, 주체가 있어서 계획적으로 만들어 냈다는 것이 저자의 주장이다.

## 누구보다 진실을 잘 아는건 광주시민과 軍이다

거기에 '외부에서 침투한 시민군'이 있었고, 심지어는 북한군 특수부대 개입설까지, 비록 설이지만 탈북자(시인과 작가인 장진섭)증언까지 곁들여 내놓고 있다. 저자의 주장대로라면 5·18은 유언비어를 확산시킨 배후조종세력이 있었고, 이 불순한 배후조종 세력에 의해 폭동이 확산되었고, 그리고 '시민군'은 헌법수호를 위해 투쟁한 것처럼 문제를 호도한 것이 된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어떤 정설도 반박하고 반대하고 비판할 자유가 있다. 어떤 정론도 파기해서 새로운 진실을 내어놓는 진화의 권리가 있다. 5·18도 지금까지 지나치게 금기시 되어 온 것들을 모두 풀어서 학자들로 하여금 자유로이 연구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

그래야 「그림자 5·18」 「虛像(허상) 5·18」이 생겨나지 않는다. 5·18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우리 軍(군)이 잘 알고, 광주 시민이 잘 안다. 군이 당시의 북한군 동향이라든지 개입설에 대해 진위를 명백히 말해 주어야 한다. 가장 명료하게 진상을 말해 줄 수 있는 장본인이 침묵을 지키고 있으면 있는 것만큼 사실과 전혀 다른 소리들이 나온다.

학자들도 「유언비어」 하나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5·18당시를 객관적으로 깊이 연구할 수 있다. 그 유언비어 하나만으로 박사학위 급 논문을 수 수십 편 만들어 낼 수 있다. 이미 30년도 더 지난 지금, 그 보다 더 매력적인 연구 자료며 연구 대상은

우리 현대사의 그 어떤 사건들에 서도 찾아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김대령씨의 저술에 버금가는, 아니 그 저술을 훨씬 능가하는 5·18 연구서가 출간되었다는 소식을 과문의 탓인지 들어보지 못했다.

### 5·18이 옳다는 글만 있는 가운데 '생각의 열림' 보인 '역사로서의 5·18'

저서는 새로운 관점에서 새로운 레토릭으로 내면 낼수록 좋다. 특히 5·18연구는 그 어느 것도 斯文亂賊(사문난적=유교에서) 교리에 어긋나거나 유교사상에 반하는 언동으로 세상을 어지럽힘을 뜻함. 흑세무민과 비슷)으로 만들지 않는 「생각의 열림」이 있어야 한다.

사문난적 오로지 5·18을 미화하는 글만이 옳고, 다른 글은 모두 5·18정신, 5·18운동을 誤讀(오독)하거나 冒瀆(모독)하고 그리고 어지럽히는 글이라는 사고는 그야말로 「역사로서의 5·18」을 잘못 만들고 잘못 읽게 하는 단초며 결과가 된다. **한민**